

近代 日本 啓蒙主義 詩 小考

吳 英 珍

目 次

- | | |
|--------------------|---------------------|
| I. 序 言 | 4. 讚頌歌와 唱歌의 啓蒙性 |
| II. 本 論 | 5. 啓蒙主義詩로서의 翻譯詩 |
| 1. 日本의 近代期의 時代的 区分 | 6. 「新體詩歌」의 啓蒙主義詩 |
| 2. 日本의 近代詩 속의 啓蒙詩 | 7. 1900年代 以後의 啓蒙主義詩 |
| 3. 福澤諭吉와 「世界國盡」 | III. 結 論 |

I. 序 言

한 時代가 다른 한 새 時代로 變換하기 위해서는 의례 社會的인 障痛이 다르게 마련이고, 그 障痛을 앞에서 啓導해 나가는 것이 이룰데면 啓蒙主義라고 할 때, 우리와 이웃 간이며, 우리 나라의 近代化에 가장 많은 影響을 끼쳤다는 日本의 這問의 事情을 알아 본다는 것은 한갓 他山之石을 넘은 보다 큰 意義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다.

日本의 啓蒙主義를 辭典에 依해서 譯出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다.

啓蒙主義：18世紀에 最盛期를 맞은 西歐의 哲學·文學의 主流。合理性·批判的 精神에 바탕을 두고, 傳統·權威에의 反抗을 나타낸다。英國에서 始作하여 록크·흠 등의 理神論者 道德哲學者가 나오고, 이윽고 프랑스로 옮겨가 몬테스큐, 보오르테르 등의 感覺論者·自然主義者·唯物論者를 輩出하여, 舊體制에의 否定的 反抗의 思想을 나타내며 大革命을 準備하였다。獨逸에서는 라이트닛츠·볼프學派가 啓蒙哲學의 役割을 遂行하였는데 칸트에 依해 止揚되었다。日本에서는 福澤諭吉·中江兆民 등이 그 代表¹⁾

1) 新潮國語辭典 p.579. 1974年 新潮社刊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써 啓蒙主義에 對한 敷衍은 避한다 할지라도 우선, 日本에 있어 啓蒙主義가 언제, 누구로부터 始作되었는가 하는 論據는 여기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本題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一旦 近代啓蒙主義로 局限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思潮를 後代의 詩人들이 影響 받았다는 치드라도 그 사람 自身들의 作品이 詩가 아닐 때에는 看過해 버리는 것을 原則으로 하겠다. 또한 過去의 韓日 兩國의 關係로 미루어 보아 當然히 比較學的인 側面에서 다루어야 마땅할 것이나 이는 後日의 命題로 미루고, 本題에서는 다만 日本 近代詩의 啓蒙詩의 實相만을 파헤쳐 앞으로의 이 面의 研究의 資料를 提供하는 것 만으로 滿足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日本의 近代期의 時代的 區分

嚴密한 意味에서 現代를 包含하는 近代라는 概念의 區分은 多少 曖昧한 點이 없지 않으나 一般的으로 日本에서는 1868年의 明治維新에서 1946年의 2次大戰까지를 잡는 것이 通例로 되어있다. 이 約 80年의 期間에 前述한 啓蒙主義의 思潮詩를 廣義的으로 包括한다면 極히 廣大할 뿐더러 本題의 原趣旨와 乖離하게 됨으로 여기서는 보다 狹義的으로 縮少하여 「사람의 마음을 인습적인 기성 관념에서 탈각시켜 시대에 즉응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갖게 제발하는 일, 특히 근세 유럽 사상의 啓蒙主義에 입각한 합리주의적 개화운동」²⁾으로 보고, 日本이 1868年에서 1910年代까지, 西歐化의 思潮를 絶對 必要로 하면서도 既存 傳統思潮와의 사이에서 煩悶하던 時期를 對象으로 이 期間에 나왔던 民衆啓導性 詩를 分析 檢討해 보기로 하겠다.

2. 日本의 近代詩 속의 啓蒙詩

日本의 近代詩를 指務할 때 1897年 島崎藤村의 抒情詩集 『若菜集』를 그 嚆矢로 삼는 게 普通이다. 이것은 詩의 內容의 問題 卽 詩文體로서의 成敗面에서 본 角度이고 單只 詩刑面에서만 區分한다면 이보다 훨씬 앞선 1869年 卽 明治維新 다음 해로까지 遡及해 갈 수가 있다. 新詩 또는 新體詩 時代로 일컬어지는 이 30年間이 이룰데면 日本의 開化期고 陣痛期이며 따라서 啓蒙主義文學이 가장 盛한 때이기도 하였다. 勿論 이런 類의 文學은 1900年代에 들어서서도 政治體制를 굳힐 때마다 形態를 달리하면서 浮沈하는데, 그러나 人智의 發達로 하여 그 內容은 顯著히 變貌하여 새로운 文學의 장르의 源泉이 되기도 하였다. 戰爭을 高揚

2) 國語大辭典 p.182. 民衆書館 1976 刊

하는 戰爭詩, 새 時代를 부르짖는 反體制詩 등도 넓은 意味의 啓蒙詩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그 範圍를 좁혀 日本文學史에서 近代 啓蒙期로 指稱되는 時期를 限定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啓蒙期

◇ 文明開化와 啓蒙思想: 明治 元年(1868)부터 다음 해에 걸쳐 싸운 戊辰戰爭의 戰火가 수습되자, 明治의 新政權은, 「富國強兵」「文明開化」의 기치 아래, 藩籍奉還⁴⁾, 廢藩置縣⁵⁾을 비롯하여, 學制·徵兵令의 公布, 太陽曆의 採用 등 西洋 諸國의 政治體制를 모델로 한 一連의 開明的인 政策을 끌어내어, 近代的인 統一國家에의 第一歩를 내딛었다. (中略) 이를테면 明治의 사람들은 鎖國時代의 단허진 世界에서, 西洋의 近代로 通하는 열려진 世界에로, 단숨에 끌려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新時代에 알맞는 人間의 處身術 事物의 分別力을 普及시키려고 努力한 것은, 西歐의 思想과 文化를 우리 나라에 導入하려는 使命感에 불타 오르고 있던 明六社⁶⁾의 洋學者들이었다. 특히 西周·中村敬宇·福澤諭吉의 三人이 完遂한 啓蒙的 役割은 至大하다.⁷⁾

序言에서 보인 啓蒙主義의 哲學的 解説과는 多少 差가 있지만 어쨌든 日本의 啓蒙期에 있어서 福澤諭吉(후쿠자와유기치)가 차지하는 比重은 양쪽이 同一하다.

이들의 思想은 文學 그 自體와는 直接的으로 關聯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새로운 人間觀은 近代文學을 創出한 有力한 母胎로 되었으며, 特히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니」로 始作되는 『學問のすゝめ』(權學論)⁸⁾은 當時의 青年들에게 實學에 依한 立身出世의 可能性을 啓示한 것으로 매우 그 意義가 크며, 75調의 韻律을 밟고 있어 그 內容面에서 보다는 體制面에서 日本近代新詩의 發源이라고 일컫는 그의 『世界國盡』 또한 顯著한 啓蒙主義의 作品으로 손꼽혀지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論題에서 밝힌 바와 같이 近代啓蒙主義詩에 局限하였으므로 이 福澤諭吉의 『世界國盡』를 匹頭로해서 向後 30餘年間に 日本 國民들에게 혹은 歌謠의 形態로 혹은 詩의 刑態로 普及 傳播된 啓蒙詩를 例證하면서 分析해 보고자 한다.

3) 明治天皇의 執權에 反對하여 舊德川幕府派가 끝까지 抗争한 戰爭
 4) 舊幕府制度下에서 地方藩主(現知事)가 구사하던 여러 支配權을 政府에 返還함을 뜻함
 5) 1871年 行政区域을 變更, 藩을 縣(우리나라의 道)으로 고치고 行政體制를 整備함을 뜻함
 6) 森有禮를 中心으로 明治六年(1873)에 結成된 啓蒙의 學術團體. 西周·中村敬宇·福澤諭吉 등 洋學者들이 結集하여 國民을 西歐文明으로 引導하기 위한 開明的 自由主義의 名分아래, 이듬해 機關誌 「明六雜誌」를 發刊하였으나, 다음 해에는 政府의 言論統制를 契機로 스스로 廢刊을 決議했다.
 7) 日本文學史 p.112. 1975年 旺文社刊
 8) 1872年刊, 現代日本文學全集 福澤諭吉編에서 轉譯載 1961年版
 9) 1869年 福澤諭吉著, 75調의 新體詩形 長編啓蒙文章으로됨

3. 福譯諭吉와 『世界國盡』

啓蒙思想의 內容에서만 본다면 西周(니시아마네)의 『百學連環』¹⁰⁾ 『百一新論』¹¹⁾이나 中村敦吉(나카무라게이우)의 『西國立志論』¹²⁾ 또한 福譯諭吉 自身の 『西洋事情』¹³⁾이나 『文明論之概略』¹⁴⁾ 등이 보다 印象的인 作品일 수도 있다. 特히 앞에서 例舉한 「學問のすゝめ」(權學論)은 그 影響이 至大하여, 前에 우리 나라 人權標語에 一等으로 當選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가 이 冊 初編 첫 머리의 첫 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影響力의 深長함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著書들은 그 文型이 小說類나 評論類들이어서 여기서는 論外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무렵, 卽 1868年의 明治維新을 前後한 日本의 近代 黎明期에 日本의 傳統詩歌의 韻律인 5音 7音을 밝아 定型律인 31音을 깨뜨리고 長詩形으로 서술해 나간 것이 이른바 『世界國盡』으로 1866年에 刊行된 『世界事情』의 異名本 같은 것으로 그 三年後인 1869年에 發行되었다. 다만 다르다면 既述한 대로 『世界事情』이 서술체인데 反해 『世界國盡』은 韻律體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까다로운 詩的 概念을 排除한다면 形體面에서는 日本 最初의 長編 新體詩가 되는 것이다.

발 단

세계는 넓도다 만국은 많다고는 하지만 대강 다섯으로 나누는 명목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과 남 아메리카로 구획이 지어져서 5대주, 대양주는 별도로 또한 남 쪽의 섬의 명칭 이어라 지방의 풍속 인정도 장소가 바뀌면 물건도 달라지나니 그 가지가지를 알지 못함은 사람이 시 남다운 값도 없나니 배움으로 얻어야 할 일이고 보면 문자와 어울려 놀 어린이들께 일상적인 생활의 훈계로써 먼저 붓을 들고서 그 대략을 기록하는 바로는

亞細亞洲

등그런 지구의 내왕로는 서 쪽의 끝에도 서가 있어서 돌며는 돌아 가는 본디의 길 동그라미 끝이 하염도 없는 태평양의 서 쪽편 아시아주의 동편에 있는 우리 일본을 시작으로하여 서 쪽편으로 배를 들고서 그 나라들을 찾아 나서면 중국은 아시아의 일대국으로…… (이하 略)¹⁵⁾

10) 西洋의 學問體系를 처음으로 本格的으로 紹介한 冊, 1868 刊

11) 功利主義思想에 바탕을 두고, 儒敎的인 人間觀을 銳利하게 批判한 書 1874 刊

12) 스마일著 「自助論」의 翻譯集 1870 刊

13) 1861年 德川幕府의 遣使使節에 隨行, 佛·英·蘭·普·露·荷 諸國을 見學하고 얻은 知識에 바탕을 두고 엮은 책, 1866年刊.

14) 文明開化의 成果를 받아들임으로써 國家의 獨立을 維持하여야 한다고 說破한 書 1875年刊

15) 日本現代詩大系 第一卷 p.12~13에서 譯轉載 1974. 河出書房刊

로 始作하여 亞細亞洲는 中國・香港등부터 地形・來歷・近況등을 75調로 상세하게 읊어 갔고, 다음으로는 歐羅巴洲로부터 맨 끝에 大洋洲에 이르기까지 世界의 여러 事情을 教科書的으로 比較的 자상하게 풀이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冊이 나온 해가 1869年으로 中國의 東 쪽에 당연히 우리 나라가 嚴存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또한 日本에서의 距離로 쳐도 中國보다는 우리 나라가 더 가까움에도 不拘하고 우리 나라에 關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다는 事實이다. 이 때만 해도 우리 나라와 日本은 完全한 獨立國家였고 著者인 福譯諭吉 自身이 後日 그의 經倫書格인 『學問のすゝめ』에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라고, 比較的 民主主義的인 理念下에서 說被한 다른 著書를 勘案할 때 理解할 수 없는 黑點을 아니 가질 수 없게 된다.

却說하고, 이 무렵에 出刊된 이런 類의 啓蒙詩的인 長文詩는 이 외에도 吉良義風の 『國書不二の麓』, 瓜生三寅의 『瓜生氏日本國盡』, 田中正幅의 『遠江風土歌』 등 多少 內容의 差異는 있다할지라도 그 모두가 口誦體 啓蒙詩로 나라 밖을 알자는 것과 日本의 優秀性을 일깨우는 것들이 있다.

막상 사람들에 天生의 賢愚는 있어도 배우지 않으면 배움으로써 있는 저명함. 정령 어린 애들의 成立은 어머니의 賢愚에 依함이려니 속담에도 이르길 박꽃의 덩굴에 가지는 열리지 않아 배우고 익혀서 세상 가운데 부모를 나타낼 자식을 가져 나라의 방벽으로 삼을지이다.
(「國盡不二の麓」의 一部)¹⁶⁾

본디 國盡(구니스쿠시)란 옛 日本의 66地方을 외기 쉬운 文句로 羅例해 만든 歌詞이며 不二(후지)는 富士山의 同音異名으로 이 세상에 들도 없는 홀륭한 山이라는 뜻으로 옛부터 널리 쓰여 왔으며, 따라서 이 日本에서 태어난 것을 無常의 榮光으로 알고 盡忠報國 하자는 노래이다.

대강 이 지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현명한 것은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없나니 그 뛰어나는 몸을 가지고 땅 위에 存在하면서 地面의 일을 모르는 것은 이 가장 부끄러운 일일지며 (瓜生氏日本國盡의 一部)¹⁷⁾

로 始作하여 初頭는 福譯諭吉의 『世界國盡』 비슷하게 나가다가 곧 그러한 世界가운데 日本은 가장 좋은 나라로 그런 日本에서 살고 있는 몸이야 말로 榮光無常이라는 調의 이 글은 日本의 地理 歴史를 網羅한 詩文章으로 福譯諭吉의 世界版에 對한 日本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明治維新(1868年) 前後의 日本의 啓蒙詩들은 모두가 ‘世界를 알고 日本을 알

16) 日本現代詩大系 p.16. 1974. 河出書房刊

17) Ibid., p.17.

자'라는 것들로 嚴格한 意味에서 詩라기보다는 詩的 誤律을 밝은 文章으로 오늘날의 詩의 概念과는 그 距離가 顯著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讚頌歌와 唱歌의 啓蒙性

이 무렵, 그러니까 國盡流의 長文型 啓蒙詩가 興行하던 1870年 前後에 버금하여, 讚頌歌와 唱歌가 日本社會에 끼친 啓蒙性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안된다. 讚頌歌는 이미 基督教와 더불어 中世紀頃부터 수다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日本뿐 아니라 東洋 各國에 上陸 傳播된 것으로, 西歐文明의 前衛的인 役割을 하여온 것이지만, 詩的인 面에서만 考察하더라도 이 讚頌歌는 初期 西歐 譯詩와 더불어 東洋詩의 變革에 至大한 影響을 끼쳤으며, 內容面에서도 또한 從來에는 없던 새로운 思想을 담고 있어 그에 따른 意識啓蒙의 濃度가 알지 않았다. 讚頌歌가 지니는 啓蒙性은, 그러나 讚頌歌의 歌詞가 詩나 아니냐의 問題와 宗教的인 啓蒙性 그 自體가 本論에서 말하는 啓蒙主義詩와 連關이 있느냐 하는 問題와 더불어 異論의 餘地가 없지 않겠으나, 다음과 같은 根據下에서 그 脈絡을 찾아 볼 수 있겠다. 卽,

우리 나라 新詩의 發端으로 보아야할 『新體詩抄』¹⁸⁾의 出現은, 결코 突發的 異變現象이 아니고 오래 前부터 사람들의 가슴에 潛在하여 차츰 優勢하여진 詩型 解放의 主張이 時機를 얻어 顯現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卽 幕末¹⁹⁾ 以來 널리 庶民들 사이에 行해졌던 往來物²⁰⁾ 및 그 흐름을 이은 國盡, 歌盡, 風土歌의 類는, 明治의 初년에 나타난 讚美歌랑 唱歌와 더불어, 新詩의 系譜에 있어 先祖이고, 上記 詩型解放의 主張을 재빨리 소탈한 形式으로 實現하여, 藝術的인 新詩에로 準據하고 있던 터였다. 따라서 『新體詩抄』에 있어서의 上記 主張의 實現은, 周知한 바와 같이, 西歐詩의 直接的인 刺戟 影響에 依하는 것이었다.²¹⁾

위 解説은 비록 讚頌歌가 啓蒙詩 그 自體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近代 初期의 거의 모든 西歐化가 啓蒙的인 性格을 띄웠다 싶이 讚頌歌도 近代 新詩의 抽出에 큰 役割을 하였고, 따라서 讚頌歌 自體가 近代 啓蒙의 큰 一翼을 擔當하였다는 最小公約數는 抽出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期를 併行하여 우리는 國民들 間에 流行하여 커다란 意識構造와 社會改革의 一翼을 擔當하였던 것으로 唱歌를 看過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近代 以前の 日本의 노래라고해야 고작

18) 1882年 刊行된 것으로 內容面에서의 日本新詩의 嚆矢로 봄

19) 徳川家康의 江戸幕府를 말하는 것으로 年부터 1868年까지이며 그 末期를 이룸

20) 中世부터 近世에 이르기까지 生活에 必要한 여러가지 知識을 편지體의 文章속에 엮어 넣은 書堂用 教科書의 총칭

21) Ibid., p.455~456 山宮允 解説

우리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調의 浪花節(나니와부시)²²⁾나 詩吟²³⁾ 程度였다. 그것이 西歐型 歌詞와 曲調의 流入으로 하여 現代感覺의 唱歌가 선보이기에 이르렀고 이 熱風은 마치 中原의 烈火처럼 온 日本을 휩쓸었다. 그 嚆矢가 이른바 1881年 文部省에서 펴낸 『小學唱歌集』으로 冊名이 보여주다 싶이 近代 學校教育의 첫 발을 내디딘 日本이 小學校 兒童들을爲해서 編纂한 것으로 內容이야 全部 兒童教育用的 것이지만 近代文物에 굶주렸던 當時의 日本人들에게는 이들 唱歌集 內容이 어른들에게까지 널리 普及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一部는 오늘날까지도 마치 追憶처럼 불러지고 있다.

반디불의 어린 빛 창 밖의 흰 눈.
 굴뚝 입던 세월들 더해 가면서.
 어느 샌가 햇수도 삼나무 문을.
 열고서 이 아침은 헤어져 간다.

한 때 우리 나라의 애국가의 가락이기도 했던 英國의 올·랭 사인 曲에 맞춰 부른 이 반딧불(螢)이라는 노래는 卒業式의 노래로 지금까지도 불러 오고 있으며, 近代 末期인 1940年代에 들어서까지도 이 曲이 英國曲이라는 事實을 아는 日本人이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程度인 狀態에서 이 노래는 離別의 哀愁와 더불어 日本사람들의 가슴을 적셔 갔던 것이다.

우러르면 거룩한 스승의 은혜
 가르침의 트랙에도 어언 몇몇 해
 생각하면 잘도 빠른 흘러간 세월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럼 자 안녕.²⁵⁾

「우러르면 거룩한」(あふげば尊し)의 題가 붙은 이 노래 亦是 卒業式 끝무렵에 卒業生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로 解放前에 學校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情感 어린 노래일 것이다. 이 밖에도 唱歌集에는 日本의 國家인 「君が代」(그대의 대)가 收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 近代初期의 童謠·民謠들이 많이 收錄되어 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小學唱歌集』과 同系流로서 1887年 文部省이 펴낸 『幼稚園唱歌集』에도 비슷한 內容의 노래들이 들어 있다.

22) 三味線(샤미센:가야금과 비슷함)을 반주로 하여, 보통 義理나 인정을 노래한 대중적인 唱

23) 한시에 가락을 붙여 읊은 노래

24) 文部省「小學唱歌集」第二十 1881年刊, 日本現代詩大系 第一卷 p.25에서 譯轉載

25) Ibid., 第五十三 あふげば尊し p.27에서 譯轉載

- 一. 배우자 배우자 끊임 없이 쉬잡고
늦지 말고 서둘러라 배움의 길을.
- 二. 배움의 길에는 산과 고개 많도다
산과 고개 넘으면은 피는 꽃 훈진다.
- 三. 피는 꽃 꽃아 들고 높은 산의 등근달
빨리 보자 빨리 보자 높은 산의 등근 달.²⁶⁾

讚頌歌와 마찬가지로 唱歌 亦是 思潮的인 面에서의 啓蒙主義詩가 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에 多小 異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이 唱歌集의 緒言에서 밝힌대로 啓蒙主義가 새 時代를 爲한 教育的 次元의 것이라면 이 唱歌들 또한 훌륭한 啓蒙主義詩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緒 言

대강 教育의 要는 德育 智育 體育의 三者에 있나니 따라서 小學에 있어서는 가장 잘 德性을 涵養함으로써 그 본디로 할지어다. 이제 그 音樂이라는 性情에 바탕하여 人心을 바르게 하고 風化를 돕는 妙用이 있는 까닭으로 옛부터 名君賢相 旣히 이를 振興하여 이를 家國에 울리도록 바라는 者 日本 中國 歐美의 史冊에 屢屢히 구하여 불지니라. 이에 우리 政府 처음으로 學制를 頒布하였으매 여기에 唱歌를 普通學科 中에 掲載하여서 一般必項의 科임을 明示하고 그 敎則 綱領을 定하는데 이르러서는 역시 이를 小學 各 等科에 附加시켜 그 必히 배우지 않으면 안됨을 明示하노라(以下略)²⁷⁾

라고 하여 새 時代에 있어서의 唱歌의 重要性을 提示하였고, 이를 爲하여 멀리 來國의 音樂 敎師를 招聘하여 百方으로 研究 檢討케하여 日本 固有의 音律에 바탕을 두고 그 長短點을 取捨補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를 이룸하여 小學唱歌集이라하며 이 본디 革創에 屬함으로써 혹은 아직 完全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그 대개는 또한 우리 教育進歩의 一助에 값하리라.²⁸⁾

라고 하였으니 近代 日本 啓蒙期에 있어 唱歌에 對해 日本政府가 얼마만큼 至大한 關心을 가졌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1874年頃부터 約 10년의 사이에 讚頌歌와 唱歌가 그 自體가 啓蒙主義詩는 아니었을지라도 日本國民들에게 얼마나 많은 敎化와 啓蒙力을 發揮하였는가 하는

26) Ibid., p.28 學べよ(배우자) 譯轉載

27) Ibid., p.24.

28) Ibid., P.24.

것은 우리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아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 啓蒙主義詩로서의 翻譯詩

日本에 西歐 翻譯詩가 선 보인 것은 日本曆 明治 15年(1882)에 發刊된 『新體詩抄』에서이다. 이보다 앞서 1805年頃 和蘭의 詩가 漢譯된 것을 1860年代에 重譯한 馬揚貞歷와 藤原 覃 等の 『三國祝章』이 있는데 詩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어설픈 것으로 여기서 論及할 價値가 없는 것으로 믿어 一旦 省略하고 넘어간다. 前年에 發刊된 『小學唱歌集』은 前述한 대로 그 나름대로의 價値와 意義는 지녔지만 後日의 日本 新詩의 發生과는 別 連聯이 없었던 까닭으로 詩的인 面에서는 우선 度外視되는 것이 常例이며, 따라서 日本 新詩(또는 新體詩)의 嚆矢로는 이 『新體詩抄』를 꼽는 것이 常識으로 되어 있다.

翻譯詩 14編과 創作詩 5編으로 되어 있는 이 詩集은 一稅의 詞華集으로 當時 東京帝國大學 教授였던 外山正一·失田部良吉·井上哲次部 三人의 共著集이었다. 元來 詩人이라기 보다는 社會學·植物學者들이었던 이들 세 사람은, 그러기에 創作詩에서 그 價値를 찾는 것보다는 翻譯詩에서 後代에 끼친 影響이 컸다. 우리 나라 初期 文藝誌인 『少年』이나 『青春』誌 등에서 볼 수 있는 西歐詩 翻譯物들도 이 詩集에 緣由된 바가 적지 않아 이에 그 大略을 記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브롬윌드氏 岳士 歸郷의 詩	外山正一
○ 캄펠氏 英國海軍의 詩	失田部良吉
○ 메니슨氏 輕騎隊 進軍의 詩	〃
○ 虞氏墳上 感情의 詩	〃
○ 롱펠로우氏 人生의 詩	外山正一
○ 메니슨氏 船將의 詩	失田部良吉
○ 찰스·킹슬레氏 悲歌	外山正一
○ 高僧 우르제-의 詩	〃
○ 샬·도레안氏 봄의 詩	失田部良吉
○ 생명의 노래(一名, 人生의 노래)	井上哲次部
○ 롱펠로우氏 兒童의 詩	失田部良吉
○ 섉스배-루氏 헨리-第四世中의 一段	失田部良吉
○ 〃 함렐 中의 一段	〃
○ 〃 〃	外山正一

以上이 이들의 翻譯詩인데, 可能한 限 적힌 대로 記載한 것은 우리 近代 文藝誌와의 比較

를 爲해서이고, 이 詩抄의 다른 五遍의 創作詩는 다음과 같다.

- 社會學의 原理에 題한다 : 宇宙萬物의 事象과 人間社會의 現象을 自然科學的인 側面에서 서술해 간 一種의 社會教養文
- 拔刀隊 : 外山正一作으로 明治維新에 對한 마지막 抗戰인 西南戰役을 鎮壓한 官軍의 勇猛을 稱頌한 것으로 日本軍歌의 始祖가 됨.
- 權學의 노래 : 失田部良吉作, 이름 그대로의 權學 啓蒙主義詩.
- 鎌倉 (가마쿠라)의 大佛을 參拜하고 感있노라 : 失田部良吉로 鎌倉는 12世紀末 日本의 初代 幕府가 開設된 곳, 新佛敎의 復興地로도 有名하다. 이 鎌倉의 大佛을 參拜하고서 의 感懷詩.
- 春夏秋冬 : 失田部良吉作으로 比較的 純粹文藝詩임.

위의 『新體詩抄』는 그 前의 讚頌歌, 唱歌등과 더불어 세 類型으로 分化되어 가면서 發展해 갔으니 그 大綱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軍歌 및 唱歌類로 데니슨, 캄펠 등의 譯詩와 「拔刀隊」의 創作詩 및 讚頌歌 『小學唱歌集』을 先驅로하며, 發表되자마자 그 內容과 價値의 잘 잘못을 물을 겨를도 없이 遠原의 불길처럼 流行하여, 畢境에는 淸日·露日戰爭³⁰⁾을 맞이하여 戰爭 最盛期를 謳歌한 日本人들에게 새 스타일인 軍歌라는 장르를 열어주었으며, 또한 唱歌는 近世期까지 日本人들이 즐겨 불렀던 「うたひもの」(謠物)³¹⁾에서 느끼지 못했던 淸新함으로 해서 新時代의 國民들에게 歡迎받았던 것이다.

잉글리쉬 나라의 해안을
군게 지키고 있는 수병들이여
1천년의 그 사이에
그대들이 세웠던 큰 깃발은
전쟁 뿐인가 태풍까지도
지탱해 냈었으니 이 후도 또한
적을 맞는다해도 굽임 없도록
있는 용기 모두다 펴리어라
싸움이사 격렬해 질테면 지라
바람 또한 세차게 불테면 불라³²⁾

29) 한때 維新功臣이었던 西郷 隆盛가 1877年 鄉里인 鹿兒島에서 일으킨 反政戰爭, 征韓論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不平이 쌓였으며, 平定된 後부터 反政府主義者는 言論으로 政府를 批判함

30) 淸日(1894~5) 露日(1904~5) 兩戰爭은 모두 日本側 勝利로 끝남

31) 말에 곡조를 붙여 노래한 것의 총칭으로 當時까지의 日本人들의 노래를 가리킴. 催馬羅, 今樣, 謠曲 등이 있음

32) 「캄펠氏 英國海軍의 詩」의 첫 聯

심리 반이여라 심리 반
 나란히 서 나가는 심리 반
 사지(死地)에 뛰어 드는 6백 기
 장수는 나가라는 명을 내렸다.
 병졸된 자의 신분으로써
 이유를 대는 것은 분수 아니며
 대답을 하는 것도 분수 아니라
 오로지 이 명령에 모두 따라서
 죽는 길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사지에 뛰어 드는 6백 기 33)

以上과 같은 外國詩의 影響을 받아 同誌에 創作詩로서 發表된 것이 다음의 「拔刀隊」로, 7·5調 14行을 한 聯으로하여 무려 6聯까지 敘述한 長編詩로 이는 前述한대로 西南戰役에 있어 警官切込隊³⁴⁾의 武勳을 稱頌한 것으로 日本軍歌의 嚆矢이며, 또한 軍歌를 流行케한 原因이 되었으며, 여기에 陸軍軍樂隊의 佛人教師 루루-가 作曲을 붙여 1885年 처음으로 演奏한 것이 이윽고 全國에 普及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軍國主義가 새 時代의 當然한 패턴처럼 理解되었던 當時의 日本으로서는 이 軍歌와 唱歌를 통해서 愛國·崇皇의 忠誠心을 國民들에게 啓導시켰으며 이의 先導的 役割을 한 것이 앞서 例를 든 翻譯詩들이었던 것이다. 1894年의 淸日戰爭까지에는 별다른 戰雲이 없었는데도 新體詩의 이름을 빈 當時의 詩家들은 즐겨 軍歌나 軍歌的인 歌詞를 지음으로써 憂國衷情의 氣蓋를 나타냈고, 特히 淸日戰爭 勃發後에는 軍歌의 創作은 繁昌을 極해, 歌詞와 謠曲이 모두 뛰어난 秀作이 많이 나왔으며, 이들은 二次大戰까지도 日本國民들 사이에 愛唱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唱歌나 軍歌들이 日本國民들에게 미친 啓蒙主義的인 役割은 至大하였으며 그 効驗 또한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가는 決死隊의 偶像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② 『新體詩抄』가 끼친 두 번째의 影響은 口誦體 方便詩로서의 啓蒙主義詩性이다. 口誦體 方便詩란 敎訓的인 內容을 口誦하기 좋게 韻律에 맞추어 編成한 것으로 價値面에서는 보잘 것 없었지만 反面에 啓蒙性은 짙은 것으로 外山正一의 「社會學의 原理에 題한다」나 失田部 良吉의 「權學의 노래」 등의 系流를 밟은 것이다.

우주의 일들은 이것 저것을
 따로 논할 수 없어 모두 다 같이
 규율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3) 「테니스氏 輕騎隊進擊의 詩」의 其一

34) 官軍의 特攻決死隊

12 는 문 집

하늘에 걸려 있는 해와 달이며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까지도
움직이는 것은 모두 인력이라고
일컬어는 힘이 있는 까닭일진데
그 인력이 움직이는 건
또한 정해져 있는 법이 있어서 35)
.....

라는 式으로 天體의 理致를 筆頭로해서 뉴-턴이 나오고 다-윈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스펜서까지 總動員되는 이들에게 詩라기 보다는 自己專攻인 社會學 第一章 第一節을 韻律을 붙여 풀이해 나가는 式의 것이었다. 矢田部の「勸學歌」는 이름 그대로 배워야 된다는 東洋的인 當爲性을 풀이해 놓은 것으로 두 편 모두 創作詩에 屬하지만 이 또한 形態와 文章의 흐름은 다른 西歐詩에 影響된 바가 크다.

그 옛날 당나라의 주문공(朱文公)
세상에 박학의 대가이면서
우리에게 학문을 권하고자
소년이로(少年易老)의 시를 지어서
사람의 한 평생은 봄의 한 밤의
꿈과도 같노라고 한탄했노라

나라의 동서 세상의 고금
사람의 높고 낮음 불문하고서
배움의 길로 들어 선 자는
그 비록 재능이 있다손 쳐도
똑 같이 다소나마 감개한 마음
일으키지 않은 일 있을까 보나 36)
(以下 略)

위와 같은 『新體詩抄』의 啓蒙主義思想은 여러가지 形態로 出版되어, 政治思想의 宣傳, 知識의 弘布, 教訓 教化를 目的으로 企圖된 7·5調의 많은 作品들이 新體詩의 이름으로 刊行, 또는 小說化되어 1880年의 中半에 쏟아져 나온 政治小說들의 前衛의 役割도 하였으며, 또한 이 系流를 밝은 小室屈山(고모로긋산)의 「自由의 노래」며 植木枝盛(우에키에다모리)의 「自由詞林」등의 詩를 誘導하기에 이르렀다.

35) 「新體詩抄」中 外山正一의 「社會學의 原理에 題한다」 一部

36) Ibid中 矢田部良吉의 「勸學의 노래」 初二聯

이 밖에도, 同書 內의 翻譯詩 中에서 啓蒙思想이 顯著한 것은 外山譯의 「몽펠로우氏 人生의 詩」와 井上哲次部の 「生命의 노래」(玉の緒の歌 一名 人生の歌)로 이 두 사람은 몽펠로우의 같은 「人生의 詩」를 各各 翻譯하여 한 詩集 속에 收錄함으로써 한 文章이 翻譯者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③ 『新體詩抄』가 갖는 세번째의 意義는 藝術的 純粹詩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 詩抄의 存在價値가 同時期의 다른 詩集들보다도 두드러지게 浮刻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藝術的 純粹詩가 後代에 끼친 影響은 啓蒙主義思潮가 아닌 浪漫主義詩이기에 여기에서는 그 軌를 달리하여야겠다. 그러나 비록 이들 純粹詩들이 그 內容上 直接的인 啓蒙主義性 語句는 使用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近代으로 탈바꿈하는 當時의 日本에 있어서는 西歐的인 모든 것들이 日本人의 낡은 意識構造를 變革시키는데 貢獻하였다고 미루어 볼 때 끼친 影響 또한 否認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6. 『新體詩歌』의 啓蒙主義詩

內容의 稚拙에도 不拘하고 『新體詩抄』가 空前의 流行을 보이자 곧 이어 國詩抄의 三作家의 作品을 分散 收錄시키면서도 內容의으로는 보다 더 政治性을 強하게 풍긴 啓蒙主義 詩集이 연이어 發行되었다. 『新體詩歌』가 바로 그것이니 『新體詩抄』發行 3個月後인 1882年 10月을 起點으로 1年사이에 五輯까지 發刊되었다. 第一輯 收錄 12編의 詩 中에는 『新體詩抄』所載의 詩가 6編이나 揭載되었으며 다음 號부터도 亦是 『新體詩抄』所載의 나머지 全詩編을 나누어 再揭載한 한 것으로 보아 『新體詩抄』에 對한 苛酷한 批評에도 아랑곳 없이 그 影響을 짐작할 수가 있다.

竹內 節의 編輯과 小室屈山 校閱로 되어 있는 이 5卷의 詩集에는 한 두編을 除外하고는 『新體詩抄』를 凌駕할만한 作品이 없으며 따라서 後日의 日本詩壇에도 別다른 影響을 주지 못하였다. 1-5號를 通해 西歐 翻譯詩도 몇編 試圖하였지만 據論할만한 것은 없고 다만 第1號에 收錄된 小室屈山의 「自由의 노래」가 內容面에서 相當한 水準의 創作詩로 꼽혀지고 있다.

하늘에는 자유의 귀신이 되고
 땅에서는 자유의 사람되리라
 자유여 자유이여 자유
 그대와 나와의 그 사이는
 천지 자연인 약속이니라
 천 대도 팔천 대도 끝말도 없이
 이 세상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우리들 두 사이의 약속을 서로

어찌하여 원수로 찢길 것인가 37)

로 시작하여, 로마제국의 시이저어와 부르터-즈의 故事, 프랑스의 루이皇帝의 悲劇, 英國의 찰스大帝의 抑壓統治와 이에 對한 國民의 抵抗, 美國의 英國에 對한 獨立戰爭 등을 史實을 바탕으로 펴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呼訴하면서 自由의 高貴함을 부르짖었다.

아아 그들만이리 우리도 또한
 자유를 위해서는 먼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이별하고
 억울한 죽음 또한 당했던 것을
 우리들 동양나라 사람이래서
 토지에 서로 다름 있을지라도
 어찌타 마음이사 다를까 보나
 사람의 자유라고 일컫는 것은
 천지 창조 자연의 이치인 것을
 노력하라 힘쓰라 사람들이여
 비굴한 백성이라 말 듣지 말라
 나 이제 이 글을 끝 맺으나니
 이 때사 바야흐르 봄의 꿈베개
 깊은 잠을 깨치는 힘 찬 종소리
 저리도 상냥하게 들려 오누나. 38)

歴史的으로 勘案할 때 1868年의 明治維新이 鎖國으로부터의 開國을 意味한다면 이를 起點으로 해서 相當期間동안을 日本은 文明開化와 新日本建設 思潮로 몸부림 쳐야만 했다. 西歐化志向의 文明化와 이를 抑制하면서 國民主義思想을 勃興시킬 때는 傳統派 사이의 葛藤은 이 20年 사이에 서로 浮流해 가면서 並存해 왔으나 1880年代의 中半에 이르자 이들 틈바구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日本國民들에게도 一旦 自由의 概念이 浮刻되어지면서 이에 關한 學論 역시 文藝的으로도 活發하였다. 政治小説面에서는 1883年 矢野龍溪(야노류우케이)의 『經國美談』을 비롯하여 東海散士의 『佳人之奇遇』(1885), 末廣鐵腸(스에히로넛조오)의 『雪中梅』(1886) 『花間鶯』(1887) 등이 나왔으며 이러한 自由主義思想의 系流를 밝은 詩集으로서 1886年 發行의 『新體詞選』이 있고 다음 해인 1887年의 『自由詞林』 등이 있다.

山田美妙編의 『新體詞選』에는 創作·翻譯 合하여 10編이 있는데 그 中에서도 特히 눈에 띄는 것은 自由思想을 高揚한 「佛國革命歌」며 「路易帝(루이) 斷頭臺의 場」등으로 이

37) 「新體詩歌」中 小室屈山の 「自由의 노래」 一部 日本現代詩大系 第一卷 p.60에서 譯轉載

38) Ibid., p.61.

는 前述한小室屈山の「自由의 노래」의 內容을 敷衍한 印象이 짙으며, 아울러 「료 반원클」의 翻譯詩를 실음으로써 當代에 팽창했던 自由에 對한 啓蒙性을 짚게했다.

나라의 빛도 자유 뿐
 국민의 명예도 자유 뿐
 하늘이 우리들을 만드신 적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때도 어이하여 폭군이
 자기보다 높은 것 없다고 하며
 나라를 잊고서 높은 꿈베개.
 이욕(利欲)의 악귀와 압제의
 악마에 쫓기면서 이용 당하며
 주색에 탐닉하여, 세를 올리고
 빼앗긴 끝에는 어린 백성들
 유랑하는 곳은 숲과 들이라. 39)

라는 序頭로 始作하여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나라를 위해
 죽어서 보람 있는 시기일진데
 내리 쏘는 빗방울 억셀지라도
 악마들의 세력은 많을지라도
 하늘이 내려 주신 이 칼과 칼
 우리 손에 이토록 권 바에사
 언제까지 지고만 있을까 보나
 나오너라 사람들아 자 나가자
 나가자 나아가자 사람들아
 자유의 창검을 빼어 들어라
 나라에 자유의 바람 없으면
 우리 이 백성들은 어찌 되리요. 40)

라고 끝맺음으로써 佛蘭西革命을 빌어 自由人權思想을 啓蒙하였으며 다른 詩編에서도 이런 調의 啓蒙을 풀이하였다. 이 詩集에서의 또 하나의 特殊性은 西歐民權思想의 高揚과 더불어 軍國 新日本의 旗幟를 높이 외친 點이다. 勿論 作者야 다르지만, 西歐 自由思想詩를 보로 收

39) 「佛國革命歌」 앞 部分. Ibid., p.100.

40) Ibid., p.100~101.

錄한 이 詩集에 다음과 같은 國粹主義的인 軍國詩가 並載되어 있다는 것은 特異한 事實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적은 몇 만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오합지졸 뿐일지니라.
오합지졸들이 아닐지라도
아군에게 정당한 도리가 있다.
사(邪)는 그것 바름에 이길 수 없고
直은 또한 曲에게 항상 이기듯
굳은 마음의 일편단심은
바위들에 화살 박힌 보기가 있다
바위들에 박힌 살의 보기 있나니
그 어찌 두려워 할 일이 있으랴
그 무엇 망설일 일이 있으랴.⁴¹⁾

이러한 軍歌調의 新體詩는 非但 반드시 이 詩集에 局限된 것만은 아니었지만 『新體詩抄』의 「拔刀隊」流를 밝은 이런 憂國愛族(?)詩는 新體詩家들 中의 國粹主義派들에 依해서 심심찮게 선보이곤 하였다.

1887年 10月 植木枝盛에 依해서 發表된 『自由詞林』은 全 6編의 小冊字에 不過하지만 內容上으로는 自由思想一邊倒의 啓蒙主義詩만을 실어 特異하다. 우선 그 題目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 米國獨立
- 瑞西獨立
- 不慮多(부르터즈)
- 自由歌(其一)(其二)(其三)

이들 內容이 詩句에 있어 小室屈山の 「自由의 노래」에 直接 影響되지 않았다는 치드라도 적어도 그러한 系流를 밝은 것만큼은 否認할 수 없다.

망망 창창하여라 망망하여라
태평양은 태평의
기반도 굳건하다 문명의
바람도 향기롭다 아메리카주

백년 전에는 잉글리쉬의

41) Ibid., p.101 「戰景大和魂」一聯 樵耕作

나라의 지배가 몹시 심하여
백성들의 자유를 짓밟아서
그 폭학도 또한 극심하였다. 42)

이와 같이 始作된 이 詩는 結局 은 國民들이 힘을 합하여 英國의 暴政을 물리치고 獨立을 爭取하여 오늘과 같은 自由共和의 新天地를 創建할 수 있었다는 內容이며, 「瑞西獨立」 역시 스위스가 壤地利의 植民地 暴政에 抵抗하여 數多한 犧牲者를 내가면서 오늘날의 自由郷을 築造하였다는 것이며, 「不慮多」는 시이저와 부르터즈의 이야기로 부르터즈가 로마市民들의 自由를 爲해 舊友인 獨裁者 시이저를 背反하였다는 것으로 부르터즈를 千古의 義人으로 추겨 올렸다. 또한 三部作으로 된 「自由歌」에는 自由의 意義·來歷에서부터 바람·決意까지를 披曆하였으니 그 大綱은 다음과 같다.

아아 자유라고 하는 하사품은
하늘이 내려 주신 것일지니라
이것을 사랑하라 세상 사람아
사람을 공경하라 세상 사람아

구름보다 더 높은 궁중 사람도
초가집 오두막에 사는 천민도
이토록 위대하신 하늘의 선물
그 누가 받지 않은 사람 있으랴

자유는 사람의 생명이니라
자유는 백성들의 보배니라
참으로 우리 인간 행복의
그 대왕이라고 할 수 있어라 43)

우리들의 바람은 자유이니라
우리들의 바람은 자유이니라
자유와 더불어서 함께 살다가
또 함께 죽으리라 명세하노라

차라리 이 목숨을 버릴지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은 자유이니라
차라리 이 한 몸을 죽일지라도
죽이기 어려운 건 자유이노라

42) Ibid., p.84. 「米國獨立」의 初二聯 以下 十二聯略

43) 「自由歌」(其一) 前三節 以下 十九節略, Ibid., p.91.

그러기로 패트릭 헨리—는
 하늘에 맹세하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찮으면
 죽음을 달라하고 외쳤었노라.⁴⁴⁾

나를 잠울려고하는 사람 있으면
 나를 잠울지어다 자아 누구든
 나를 죽이고자하는 사람 있으면
 나를 죽일지어다 자아 누구든

백만 세 (百萬勢) 의 대군도
 울테면 오너라 자아 누구든
 무리지는 호랑이 늑대들 또한
 울테면 오너라 자아 누구든

이 몸은 자유의 대왕 대군(大君)의
 말 앞에 버터 서서 안 움직일 터
 죽는 게 낫다면 죽을 뿐
 사는 게 낫다면 살 뿐이노라.⁴⁵⁾

植木枝盛의 이러한 自由啓蒙主義詩는 여느 다른 詩와 마찬가지로 詩語面에서는 펍 幼稚하고 內容 또한 부실하지만 그러나 自由에 對한 意志와 氣蓋만은 대단하여 그 때까지 自由라는 概念조차도 生疎하던 日本사람들에게는 한 좋은 刺戟劑인 啓蒙詩였음에 틀림 없다. 그는 또한 이보다 훨씬 앞인 1879년에 出版된 翻譯論集 『民權自由論』의 附錄으로 「民權田舍歌」(민권 시골노래)를 發表하였는데 그 文脈이야 보잘 것 없지만 發表年代가 1879年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自由며 人權에 對해서 論하기 훨씬 前인 關係로 이 한 編의 詩에 그럴만한 價値를 賦與하는 것도 결코 無理는 아니다.

자유일진더 인간의 몸
 머리도 발도 갖추어져서
 마음의 영묘함 만물을 넘어서
 마음과 몸과가 구비된 것은
 하나의 천지라고 말해도 좋다
 자기 혼자서 혼자서 서요
 아무러한 부족도 없는 것임에
 그러기에 인간을 자유라고 일컫는다.
 자유야 자유야 인간은 자유

44) 「自由歌」(其二) 前三節 以下 六節略 Ibid., p.94.

45) 「自由歌」(其三) 第三節 以下 三節略 Ibid., p.95.

가는 것도 자유요 서는 것도 자유
 먹는 것도 자유요 사는 것도 자유
 마음은 생각하고 입은 말하고
 몸은 움직이고 발은 달린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다 자유
 자유로히 하는 것이 나의 권리
 자유의 권리는 누구나가 갖는다⁴⁶⁾

7·7律 7·5律을 벗어나 가면서 읊은 이 律詩는 우선 表現하려는 意味는 뚜렷하지만 言語의 洗鍊性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또한 自由의 概念에 있어서도 오늘날과는 顯著하게 差異가 있어 這間의 事情을 窮視할 수가 있다.

以上에서 우리는 『新體詩歌』를 爲始해서 『新體詞選』과 『自由詞林』等 一連의 政治性이 濃厚한 啓蒙主義詩들을 一瞥하였는데 事實 1880年代라고 하면 啓蒙思想을 담은 政治小說들과 함께 이들 詩들도 最盛의 時代로 一旦 이 期를 넘어서 1890年代에 들어 서면 日本詩壇도 軍歌流를 除外하고는 浪漫主義의인 關門에 들어 서게되며 一旦 浪漫主義의 雅麗한 詩語를 接하게된 後로부터는 비록 그 詩의 內容이 啓蒙性을 띠고 있다 손 치드라도 表現技法에 있어 1880年代의 그것과는 顯著하게 差異가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1894년부터 1904~5年 사이의 清日·露日 兩戰爭 사이에 있었던 軍歌調 啓蒙詩들은 前述의 것들로 代身하기로 하고 이어 1900年代 以後의 啓蒙性 傾向의 詩들을 整理해 보기로 하겠다.

7. 1900年代 以後의 啓蒙主義詩

1897年 島崎藤村(시마자기도오손)에 의해 抒情詩集 『若菜集』(여린 꽃잎들)이 發刊된다. 日本最初の 浪漫主義詩集이며 이 前에 있었던 모든 新體詩運動은 오로지 이 한 卷의 詩集을 準備하기 위한 整地作業이었다고해도 過言이 아닐만큼 이 詩集의 詩情과 詩語는 完璧하며 따라서 日本文壇에 新詩의 참 모습을 보여준 傑作集이기도 하였다. 이 1897年을 分岐點으로해서 日本의 詩壇은 새로운 樣相을 띠게되니 그 以前의 啓蒙主義性 詩와 詩人들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代身 浪漫主義 및 象徵主義 時代로 變換하게 된다. 勿論 이 말은 이 以後에 日本에 啓蒙主義詩가 없어져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啓蒙主義 그 自體가 하나의 思想이 니만큼 언제 어디서나 다만 그 形態를 달리하여 存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따라서 이 以後에 씌어진 啓蒙主義詩들은 그 以前에 씌어진 啓蒙主義詩들보다도 그 表現技法에 있어 顯著히 高次元의이 되었으며 어떤 面에서나 詩다운 面貌를 갖춘 詩로 되었다. 卽 以前의 啓蒙主義詩가 그 뜻하는 바 意味의 傳達에 汲汲한 나머지 詩의 生命이라고 할 수 있는 言語의 美化를 度外視한데 反해 『若菜集』의 그 洗鍊된 詩語에 刺戟된 이 以後의 모든 詩들은 그 뜻하는

46) 「民權田舎歌」初 16節 以下 59節略 Ibid., p.96.

바가 어떻게 間에 그 表現技法과 言語의 選擇에 보다 큰 比重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 『若菜集』이 發表되기 以前 그러니까 前揚한 啓蒙主義詩와 詩人들을 除外하고서도 日本에서는 1890年을 前後한 時期에 그 所屬을 確然히 區分지을 수 없는 여러 詩人들이 여러 詩人들이 여러 모로 詩活動을 展開하였다. 傾向으로 보아 分明히 小室屈山이나 植木枝盛과 같은 啓蒙主義系流는 아닌 脫啓蒙主義的인, 회미하나마 一種의 抒情詩를 志向하는 詩人들이 있었다. 그 始初는 1882年의 『新體詩抄』의 三作家가 되겠지만 90年代에 들어 서면은 上田萬年, 湯淺半月, 落合直文, 北村透谷, 山田美妙, 中西梅花, 大和田建樹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 外에 島崎藤材이 『若菜集』를 쓸 수 있도록 先導의 役割을 한 決定的인 要因들로서 우리는 森鷗外の 譯詩集 『於母影』⁴⁷⁾와 北村透谷의 『文學界』⁴⁸⁾ 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於母影』(오모가게)는 1889年 8月 森鷗外(모리오오가이)를 中心으로 하여 小金井喜美子, 井上通泰 등이 펴낸 譯詩集으로 西歐詩뿐만이 아니고 漢詩까지도 近代化되어 和文調와 漢文調의 調和 위에 생기는 西洋的인 情調가 當時의 文壇과 靑壯年層에 대단한 影響을 끼친 冊으로 特히 우리 나라에도 重譯되어진 괴에테의 「미온의 노래」를 爲始하여 셰크피어의 「오페리어의 노래」 바이론의 「만프렛의 一節」등은 記錄할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前述한대로 浪漫主義의 系流를 汲은 것들로 이에 對한 것은 다음 論題로 미루기로 하겠다.

啓蒙主義가 後日 自然主義文學을 誘導하였다고 볼 때 日本詩壇의 自然主義詩는 國木田獨步 河井醉茗·石川啄木·川路柳虹 등의 初期 詩人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國木田獨步나 河井醉茗의 自然觀照的인 作風은 여기에서 論外로 하더라도 石川啄木나 川路柳虹의 思潮的인 啓蒙詩를 例舉해 보기로 하자.

끝 없는 토론 후

우리들이 즐겨 읽고, 즐겨 토론을 벌이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눈 반짝이는 것

50년 전의 러시아의 청년에 못지 않다.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토론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卽혹 권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V NAROD!’⁴⁹⁾ 하며 외치고 나오는 자 없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47) 「國民之友」 夏期附錄으로 出刊된 新聲社의 譯詩集

48) 北村透谷, 星野天知, 島崎藤村, 上田敏 등 主로 基督教의 분위기의 人들로서 西歐 浪漫主義 作品을 많이 읽고 이를 實現시키기에 努力한 同人雜誌

49) 1870년대 러시아의 혁명가 나로도니키가 轉化하여 「인민들 속으로」 「실천」 등의 뜻을 지님

또한, 민중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안다.
 참으로 50년 전의 러시아 청년들
 보다도 많이 안다.
 하지만 누구 하나, ㄱ옥 쥘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V NARÓD!' 하며 외치고 나오는 자 없다.

여기에 모인 자들은 모두 청년이다.
 언제나 세상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청년이다.
 우리들은 노인들이 빨리 죽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드디어 이기는 것을 안다.
 보라, 우리들 눈의 반짝임을, 또한 그 토론의 격렬함을.
 하지만 누구 하나 ㄱ옥 쥘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V NARÓD!' 하며 외치고 나오는 자 없다.

아아, 촛불은 벌써 세 번이나 바뀌고,
 음료수 잔에는 작은 날벌레들의 죽은 것들 떠.
 젊은 부인의 열성에 변함은 없어도,
 그 눈에는, 끝 없는 토론 후의 피곤이 있노라.
 하지만, 더욱, 누구 하나, ㄱ옥 쥘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V NARÓD!' 하며 외치고 나오는 자 없다.⁵⁰⁾

이 詩는 石川啄木(이시가와다쿠보쿠)가 1911년에 發表한 『呼子と口笛』(호루라기와 휘파람) 中の 한 編이다. 처음 浪漫主義詩로 始作한 그는 가난과 逆境을 헤매면서 自然主義·社會主義로 三轉, 드디어는 27歲의 젊은 나이로 夭折한 不遇한 詩人인데, 그가 죽은 것이 1912年이므로 이 詩는 그의 晩年の 作, 그러니까 社會主義 傾向詩이다. 內容으로 보아도 多分히 思想的인 傾向을 衝動 乃至는 啓蒙하는 듯한 것으로 近代 初期 日本의 社會主義啓蒙詩 性向의 前衝로 볼직한 詩이다.

川路柳虹(가와지류우쿄오)는 日本에서 처음으로 口語體詩를 試圖한 詩人으로 1910年代를 裝飾한 사람이다. 口語體란 生活用語體로 當時의 詩語로서는 卑俗視했던 것. 이와 對稱되는 것으로 「이나라」「하니라」 式의 文語體가 있는데 비록 近代詩가 이즈음 字數의 制限에서는 解放되었다고 하지만 言語驅使에 있어서는 依舊하였는지라 이것을 口語體로 바꾼 것 또한 一種의 詩的 革命이었음에 틀림 없다. 그는 아울러 當時 膨脹해 있던 浪漫主義 傾向의 抽象性에서 脫皮하여 詩의 素材를 生活周邊에서 求함으로써 自然主義詩의 새 장르를 發展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傾向과는 달리 1910年代의 後半에 낸 一連의 詩集에서 獨特한 內容의 啓蒙主義詩를 發表하여 異彩를 띄었다.

50) 「はてしなき議論の後」 全文, 現代名詩選 上卷 p.79~80 譯轉載 1975. 新聞社刊

썩썩한 동이 튄다!
 썩썩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친다!
 소용돌이 속 불타 오르는 한 가운데에
 일본은 있다.
 스스로의 손으로써 새벽 어스름을
 스스로의 손으로써 폭풍우를
 헤쳐 여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중 략)

네 눈 앞에서 즐고 있는 아세아.
 너를 노려 보고 있는 아메리카.
 너를 시샘하는 이웃 사람.
 너를 의심하는 이방인.
 아아, 네가 저야할 십자가는
 헤일 수 없이 많다! 너의
 온 힘을 다한 소리로 울부짖어도
 아직 모자라는 증명의 말이 있다!
 햇빛에 녹은 눈더미가 강을 이루어 가듯
 독을 넘어 아득히 밀려 흘러가는 하나의 힘
 그와 같이 일본을
 미와 정신의 일본을
 각자의 손으로 헤쳐 뿌려라, 저편으로!
 개조하는 새벽,
 다시 고쳐 만드는 세계에
 한갓 듚직한 기초를
 한갓 새로운 힘의 하나를
 내 밀어라!

(중 략)

사람들이여, 놀라울 만큼의 대담성으로
 놀라울 만큼의 진심으로
 온갖 위망과 비열과 공리를 버려라!
 도의를 부르짖는 그리스도의 아이들에게
 발가 벗은 도의를 보여 주어라!
 원숭이와도 같이 경멸 당한 종족의
 뼈저린 가면을 벗어 없애라!
 잘 못된 전설의 일본을.
 동화의 일본을, 검의 일본을, 노후한 일본을,
 건장한 젊은 일본으로, 문화적인 일본으로
 재건하여라. 아아, 화산 위에 떠 올려진 유럽이
 피의 댕가를 치루고 얻은 새로운 세기—

너는 그 「때」에 맞대어
 얼마 만큼의 피를 지불했느냐?
 세계가 고민하는 고뇌 속에서
 얼마 만큼의 아픔을 같이 했느냐!
 잠 잘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여!⁵¹⁾
 (후 략)

그는 1921 年에 刊行한 『새벽의 소리』 詩集에서 위의 詩 外에도 「飛行機」「休戰」「思想」等, 같은 傾向의 一連의 詩를 發表하여 異彩를 띄었다.

啓蒙主義詩가 政治思想과 結合이 될 때, 日本의 思想的 啓蒙主義詩는 앞서 말한 石川啄木보다 數年 앞선 1903 年의 兒玉花外(고다마가가이)의 『社會主義詩集』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이 詩集은 當局으로부터 社會의 安寧秩序를 위태롭게 한다는 名目으로 發賣禁止된 最初의 詩集이 되었으며 따라서 그 後에 發表된 그의 다른 詩들에 이 「發賣禁止」라는 幽靈이 빌붙어 있었던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그 表現語句나 傾向으로 보아서 石川啄木의 그것 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오히려 浪漫的인 詩風마저 엿보이게 하고 있다.

닭의 노래

혁명을 저 닭의
 소리에 비껴서 노래할꺼나.
 잠 자는 친지를 한 소리로
 한가롭고 드높게 일깨운다
 힘은 나약하고 빛도 없는
 죽어 버린 이 세상에 소리 질러서
 생명을 불러 드릴 사람처럼.
 어두운 잠자리서 홀로 잠 깨어
 밝은 빛을 그리는 눈의 모습은
 자유의 촛불을 손에 잡고서
 어둔 밤을 비치는 사람과 같게.
 음침하고 비좁은 보금자리에서
 어둠을 짓궂고서 우는 소리는
 세상을 이끌어 갈 영웅호걸의
 외침을 닮았노니- 교묘한 소리.

51) 「日本の 새벽」 一部 詩集 「새벽의 소리」에서 1921 年刊

〈중 략〉

닭장 속에 있을 때의 조용함은
 백성의 머리 위에 잔학스러운
 도끼 들어 올렸던 폭군이
 팔뚝을 잡히고서 감옥 안으로
 끌려 가 묻혀 버린 사람 같도다.

모이 잡아 뿌리던 사람의 손이
 목덜미에 닿아서 비명 지르며
 죽음 잠에 떨어지는 그 모습은
 민권 자유를 부르짖었던
 눈물과 피에 맺힌 대장부가
 교수대 기계 위의 아침 이슬의
 빛나는 빛과 함께 스러지는 듯.

지금 내가 노래를 부르는 몸은
 암흑처럼 캄캄한 국가 사회에
 자유의 밝은 빛 반짝거리서
 하늘 땅에 가득 찰 기쁜 환희의
 소리 용솟음칠 날 못기다려서
 닭과 함께 소리 쳐 노래하노라. 52)

英國詩人 바이론에 顛倒한 그였는지라 그의 詩는 社會主義詩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社會主義의 抒情的인 前衛役割에 지나지 않으며 革命에 對한 觀念이나 貧困에 對한 共感 역시 奈弱하였다. 위의 詩는 그로부터 四年 後에 發刊하려다 發賣禁止된 『社會主義詩集』 以前의 것이지만, 이 詩로 미루어 보아 그의 思想的인 背景은 알 수 있으나 詩的인 啓蒙效果는 오히려 後日의 石川啄木 등의 그것과 比較해서 한층 微弱한 것을 느낄 것이다. 53)

以上에서 우리는 日本 近代時中の 啓蒙主義詩를 大綱 살펴 보았다. 이 以後에도 1830 年에 들어 서면서 二次大戰의 終戰까지 日本은 크고 작은 侵略戰爭을 치루는 동안, 變節文人들이나 國粹文人들에 依한 衝動的인 戰爭啓蒙詩나 軍歌 등이 范藍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質이나 文學性으로 보아 여기에서 다들만한 價値를 認定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믿어 省略하기로 한다. 또한 終戰後의 새 時代를 準據하는 啓蒙主義性 詩 亦是 여기에서 意圖하는 本來의 뜻과는 多少 距離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一旦 除外하고 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52) 1899 年 山本麗葉, 山田枯柳 등과 共著한 詩集 「風月萬歌」속의 一編. 明治大正詩集 新潮社 1978 年刊 p.88~90에서 譯轉載

53) 當時 押収된 「社會主義詩集」은 단 二卷이 남아 있어 그의 死後인 終戰後 1948 年에 復元 發刊되었다고 하나 入手하지 못하였으므로 紹介에만 그칩니다.

III. 結 論

開化期란 반드시 西歐文明이 亂入한 近代 初期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새 時代에 對한 開化期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過去를 基準으로해서 未來에 焦點을 두고 부르짖는 思潮는 一種의 啓蒙主義思潮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 取扱한 日本 近代 啓蒙主義詩의 範圍는 그 時期를 限定하여 一旦 1900 年代 以前의 西歐思潮 流入時期로 끊었다. 그 까닭은 東洋의 오랜 歷史 속에서도 한 意味에 있어서의 改革에 對한 啓蒙은 있어 왔으며, 그러기에 極히 徵徵하기는 하였지만 多少間의 制度의 改革과 社會發展은 있어 왔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 明治維新에 이은 近代 前期의 諸改革은 그 實 改革이라기 보다는 完연한 하나의 革命이었으며 舊思潮에 對한 漂白作用이었다. 詩的인 側面에서 볼 때 近代 開化期의 啓蒙主義思潮는 비록 詩的인 技巧面이나 詩語面에서 稚拙한 點은 있었다할지라도 그 以後에 發達한 完全한 意味의 近代詩를 發芽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 先導的 役割을 하였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따라서 이 한 時期를 따로 獨立시켜 近代 啓蒙主義期로 봄이 妥當할 것이다.

이미 本論에서 指適한대로 日本에 完全한 意味의 近代詩가 成立되기까지의 約 3~40 年間에 있어 啓蒙主義詩는 우선 形態面에서 日本의 傳統詩를 解放시켰으며 內容面에서 또한 前代 未聞의 自由思想을 鼓吹시킴으로써 文學思想의 發達は 勿論, 社會發展의 母胎가 되었음이 確實해졌으며 本題에서 提高한 意義 亦是 여기에 있었음을 闡明해 두는 바이다.

- Summary -

The View of the Enlightenment Poem in Japanese Modern Literature

Young-jin Oh

In Japanese, it seems that the enlightenment period, in policy and literature, falls on the early years of the modern age, from 1868 to about 1900. The through of the enlightenment was a leading ideology which guided that period to a new period. And we can find it easily that the movement of the enlightenment was the first step which modernized and westernized the Orient.

Japanese poets also, in the beginning of the modern age, expressed their thoughts with emphasis in the new style of poetry, keeping steps with the trends of political thought in those days. Accordingly, the form of the set-rhymed verse was changed into the new style of poetry or the enlightenment style. The restriction of form was removed and the contents of the poems were filled with liberalism, which was not unfamiliar to the Orientals. The hymn of Christianity, the chant of the western style, and army songs were important factors which preceded the enlightenment poems.

From the beginning of 1900s, till the trend of romanticism flowed in Japan, the enlightenment poem was childish and under level but it was appealing to the new world for something, making a new main current of the poetry world. Since then, the form of the poem and the skill of expression of it were changed, but the veins of it were not cut off. Though the poem was even used as a means of leading the war, I think the original purpose of it was to enlighten the spirit of Japan so as to meet the new age. So it is natural for us to think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have raised the level of Japan so high is the literature of the enlightenment, especially the poem of the enlightenment.